

학사경고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Learning Mentoring Program o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강대식*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Dae-Sik Kang*

Liberal Arts Colleg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1020, Korea

[요약]

본 연구는 학사경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자 45명을 실험집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사경고자 40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효과성 검증을 위해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아존중감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정서적응은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learning mentoring program on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who had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45) and a control group (40). To obtain the data, conducted pre-test and post -test. To analyze data, t-test, ANCOVA were execu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arning mentoring program affected significantly on improvement of experimental group's self-esteem. Second, learning mentoring program affected significantly on improvement of experimental group's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but emotional adaptation was no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mentoring program was effective,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Key Words: Adjustment to college life, Learning mentoring program, Self-esteem

<http://dx.doi.org/10.14702/JPEE.2021.07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4 March 2021; Revised 21 April 2021

Accepted 22 April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breakwind@nsu.ac.kr

I. 서론

교육부 통계자료[1]에 따르면, 2019년 대학진학률은 70.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하였다.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 및 능력중심사회로의 이행 등으로 인하여 대학진학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학진학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학생의 수가 증가한 만큼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 부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중도이탈 및 정신건강 지표, 학업 저성취 각종 기록 등이 있다. 이 중 대학생의 학업 실패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학사경고 경험 여부이다[2].

학사경고생이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이러한 학사경고생의 발생원인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학업 부적응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대학생활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학업실패가 대학생활 부적응을 야기하기도 하고, 대학입학 후 적응의 어려움이 학업 적응을 저해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반복된 학습무력감이 전 생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적응 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 입학 이후의 생활은 환경과 개인의 상호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업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3]. 이처럼 학사경고생은 개인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학사경고생 발생과 관련된 주요 변인을 분석한 논문[4]에 따르면, 학습에 대한 흥미, 자기효능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 자기조절 능력, 진로인식, 사회적지지, 대학만족도, 학업적 목표지향성, 시간관리, 읽기/쓰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전공 관련 정보 습득, 수업과제 이해도 등이 부족하게 되면 대학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으로 볼 때, 학사경고생은 자신의 학업 기술 외에도 사회·정서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많은 대학에서 학사경고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사경고생의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강력한 효과가 증명된 또래 학습멘토링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학습멘토링은 대학 선배이자 학업 우수학생인 멘토가 학사경고생인 멘티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멘티가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자아존중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여기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6],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변화와 도전에 알맞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7].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적지지, 우울감,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8, 9],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정서지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

이렇게 볼 때, 학습멘토링과 같이 학사경고생이 대학에 적응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학사경고자에 대한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원인 분석과 실패 요인을 다룬 연구들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만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을 뿐[4], 학사경고자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사경고생 대상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와 둘째, 학사경고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이다.

II. 이론적 배경

A. 자아존중감

학사경고생은 학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낮은 학습동기와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시간관리 및 학습전략의 부재, 동료 학우와 교수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그것이다[12]. 특히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13]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 및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인식 수준에 따라 적극적인 상황 대처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우울감에 큰 영향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14,15]가 언급하듯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생의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스트레스 대처에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사경고생은 자기효능감 또는 자아존중감이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4] 대학 차원에서 학사경고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B. 대학생활 적응

학사경고자들은 학업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과 건강까지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16].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데 대체로 대학 내에서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여 본인이 속한 대학과 구성원들에 대한 애착과 호감을 가지는 것[17]으로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구성원들과 사회적 관계와 학업적 관계를 맺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써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달단계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 구성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많다. 학업적 적응은 학업 요구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사회적 적응은 대학생활 중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요소들에 적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서적 적응은 대학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8].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학사경고생에게 매우 유용한 심리적 기제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사경고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사경고자 대상 동료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충남 소재 N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2019년 2학기에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자 45명을 실험집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사경고자 40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남성 29명, 여성 16명이며, 통제집단은 남성 28명, 여성 12명이다. 멘토 역할을 수행한 학생은 학사경고자가 속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표 1.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Table 1. Learning mentoring program

	활동주제	활동내용	질 관리
1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및 멘토-멘티 소개 활동서약 및 사전검사 실시 	
2	공동 목표 설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포 형성 멘토-멘티 협의하여 학습목표 및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고서 제출
3	진로 및 학습습관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멘티 협의하여 진로탐색 멘티의 학습습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고서 제출
4	학습상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티의 예습, 복습 상태 확인하기 학습저해 요인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고서 제출
5	학습전략 특강 및 학습상담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학습전략 특강 수강 지도교수와 학습상담 하기 	
6	학습전략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전략 수립하기 멘토와 함께 시험공부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고서 제출
7	시험결과 피드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및 기말시험 결과에 대한 의견 나누기 원인과 문제점, 해결점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고서 제출
8	종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목표 달성 여부 체크하기 사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감문 제출

성적 우수자이며, 1대 1 면대면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 등의 절차 등을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사전-사후검사 자료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각각 2019년 9월, 2019년 12월에 수집하였다.

B. 프로그램 구성

N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사경고자 대상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은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이루어진다. 초기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의 취지, 활동 시 유의사항 및 지원사항 소개, 멘토-멘티 간 라포를 형성하며, 1대 1 면대면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및 진로, 학습습관 등에 대하여 성찰한다. 중간단계에서는 멘티가 처해 있는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내에서 실시하는 학습전략 특강 및 지도교수와 학습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 마무리단계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중간 및 기말시험을 준비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성찰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학사경고자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C.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8]이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이며, [9]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관련 5문항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등의 문항이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관련 5문항은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자랑한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 등의 문항(역코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이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2)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17]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이며, [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학업적응 4문항, 사회적응 4문항, 정서적응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며, 스스로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 대학생활에의 참여, 원만한 인간관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D.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사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고,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처치 전 두 집단 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적응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Table 2. Pre-test of homogeneity EG and CG

Variables	EG(N=45)	CG(N=40)	t	
	M(SD)	M(SD)		
Self-esteem	3.06(.66)	2.94(.59)	-.853	
Adaptation to college	Academic	2.91(.48)	2.73(.55)	-1.643
	Social	3.47(.70)	3.29(.72)	-1.168
	Emotional	3.33(.70)	3.41(.59)	.559

B. 학사경고자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1) 자아존중감 향상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점수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변화

Table 3. Change of self-esteem EG and CG

Group	Pre-test	Post-test	Ad-score
	M(SD)	M(SD)	M
EG	3.06(.66)	3.77(.55)	3.76
CG	2.94(.59)	3.41(.46)	3.42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ANCOVA to self-esteem

Variable	SV	SS	df	MS	F
Self-esteem	Covariate (pre-test)	1.025	1	1.025	4.029*
	Main effect	2.426	1	2.426	9.532**
	Error	20.869	82	.254	

또한 사전 자아존중감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점수는 아니므로 사전검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면 오차변인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보다 정확히 효과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정된 사후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표 4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활 적응 향상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사후 대학생활 적응 점수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모두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에 향상되었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학생활 적응 변화

Table 5. Chang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EG and CG

Group	Pre-test	Post-test	Ad-score	
	M(SD)	M(SD)	M	
Academic	EG	2.91(.48)	3.60(.40)	3.58
	CG	2.73(.55)	3.12(.51)	3.15
Social	EG	3.47(.70)	3.86(.60)	3.84
	CG	3.29(.72)	3.40(.41)	3.42
Emotional	EG	3.33(.70)	3.65(.54)	3.65
	CG	3.41(.59)	3.55(.61)	3.54

또한 대학생활 적응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의 교정된 사후점수 평균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서적응 점수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제언

학사경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고안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사경고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프로그램 완료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9]. 학사경고생은 학사경고를 받은 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 손상, 우울감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사경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학과 소속 성적우수자 선배와 1대 1인 멘토링을 장기간 친밀감을 형성하고서 학습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지도교수와 학습상담을 병행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둘째,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사경고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프로그램 완료 후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0].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발달과 나아가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서적응에는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정서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서가 일시적인 감정과 달리 개인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상태라고 할 때, 학업적응이나 사회적응보다 심도 있는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에는 정서적응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 6.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ANCOVA to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SV	SS	df	MS	F
Academic adaptation	Covariate (pre-test)	1.074	1	1.074	5.323*
	Main effect	3.891	1	3.891	19.283***
	Error	16.546	82	.202	
Social adaptation	Covariate (pre-test)	1.524	1	1.524	5.800*
	Main effect	3.725	1	3.725	14.179***
	Error	21.541	82	.263	
Emotional adaptation	Covariate (pre-test)	.025	1	.025	.072
	Main effect	.220	1	.220	.646
	Error	27.925	82	.341	

연구결과에 더해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집단 반복연구를 통해 학사경고생 대상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단계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편,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다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입생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사경고생의 발생은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심동적, 환경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일어난다.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은 고등학교까지 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신입생 시기부터 대학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선배 멘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사경고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접근해야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상담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MOE, “2019 Education basic statistics report,” 2019.
 [2] H. J. Jeon, “A study on students at top-ranked universities who received repeated academic probation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3] V. Tinto,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no. 1, pp. 89-125, March 1975.
 [4] Y. J. Lee, H. J. Yang, and S. H. Cho, “Issues on the educa-

tional interventions for the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Educational Method Research*, vol. 29, no. 1, pp. 161-184, 2017.
 [5] J. W. Cha, “The effect of p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tudent’s communica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t university,” *Human & Society*, vol. 9, no. 2, pp. 567-577, April 2018.
 [6] M. Rosenberg,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Leahy, R. L.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Academic Press, Orlando, FL, 1985.
 [7] B. H. Park,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 attachment and adjustment in college,” Ph.D.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6.
 [8]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1967.
 [9] H. S. Park and S. Y. Mun, “Mediator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affecting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self-respect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8, no. 3, pp. 197-218, 2014.
 [10] Y. J. Kim, “A study on the relative on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self-efficacy, and mother’s rearing attitud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9.
 [11] J. D. Mayer, D. Caruso, and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 27, no. 4, pp. 267-298, December 1999.
 [12] U. Baslanti, “Investigating the under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Exploring subscales,” *Interna-*

- tional Journal of Progressive Education*, vol. 4, no. 2, pp. 40-56, 2008.
- [13] Y. H.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06.
- [14] I. Arcand and R. Leblanc, "Academic probation and companionship: Three perspectives on experience and support," *Mevlan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vol. 1, no. 2, pp. 1-14, 2011.
- [15] S. Baker and N. Pomerantz, "Impact of learning communities on retention at a metropolitan univers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vol. 2, no. 2, pp. 115-126, August 2000.
- [16] Y. A. Ju, Y. H. Kim, and S. K. Won, "An exploration study of the factors for under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failure and academic persistence on academy probation: focus group interview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vol. 14, no. 4, pp. 47-69, 2012.
- [17]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 [18] M. A. Oh,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students'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and adaptation to college," Ph.D. dissertation, Dongduk Woman University, 2020.
- [19] S. H. Lee, "Influences of mentoring program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2, pp. 247-254, 2006.
- [20] M. H. Cheong, G. S. Shin, and S. M. Park, "The effect of mentoring program for increasing of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Research*, vol. 43, no. 1, pp. 1-24, 2005.



강대식 (Dae-Sik Kang) _정회원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2013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관심분야) 이러닝생태학, 교육공학, 교육평가 등